**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9A – 마태복음 19-20장: 예루살렘에 접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9A 강의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거룩한 도성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과 5장 사이의 서사 블록, 18장의 왕국의 가치에 대한 서사 블록, 그리고 24장과 25장의 종말론적 서사 블록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서사 블록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너머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유대로 여행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19:1).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강을 건너 깊은 균열 계곡에 있는 여리고로 가십니다(20:29).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서쪽으로 언덕을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벳바게와 올리브산까지 가십니다(20:17, 20:11). 적절한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도시에 들어가시고(21:10), 성전 지도자들과 마주치신 후,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십니다(21:17).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는 도시로 돌아오시고(21:18),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21:23).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과 일련의 격렬한 논쟁에 휘말리십니다.

이러한 논쟁은 마태복음 23장의 일곱 가지 화(火) 조항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24:1-3).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담화인 24장과 25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 제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으실 예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같은 기본적인 주제를 이어갑니다.

주제는 익숙하지만, 내용은 마지막 이야기 블록보다 주제별로 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수난 예언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본문의 대부분은 19장 10절부터 20장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21장 12절부터 23장 39절까지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하시는 내용입니다.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제자 중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마태복음 18장의 네 번째 담화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의 성전 담화를 다룬 자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의 성전 대결이라는 나쁜 상황은 최악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21장과 22장에서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23장에서 더 심해집니다.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의 구조는 마태복음 19:1-15입니다. 19:1-15는 마태복음 18장의 담화에서 시작된 서사 블록을 시작하는 전환과 소개로 시작합니다. 이 서사 블록은 19:3-9에서 이혼의 합법성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 이혼에 대한 예수의 비난은 제자들이 독신의 우월성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예수는 19:10-12에서 이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는 그들을 긍정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는 세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초기 논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바로잡으시는 두 번의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 전체에서 핵심 모티프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네 가지 답변, 즉 19장 4절과 8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답변, 19장 11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결혼의 영속성과 이혼의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해 논쟁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들과의 독신 생활과 자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결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혼의 영속성과 규범성이 이 구절의 주요 요점입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신 것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죄로 인한 이혼을 경시하신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독신 생활을 비교적 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생활 방식으로 설명하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이 표준임을 암묵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그분의 긍정은 결혼 제도 자체를 암묵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혼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독신 생활은 더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결혼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은 직장 생활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장애물로 여겨져 종종 경시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이 당신 백성을 위한 신성한 본보기이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턴은 성적인 불륜으로 깨지고 나서야 법적 이혼을 통해 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적 은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패턴에 따르는 의무가 독신의 겉보기에 자유로운 삶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이 패턴의 후손들은 긍정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마태복음 16:25의 가르침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독신 생활, 그리고 무자녀 생활은 성공과 성취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외롭고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혼과 육아는 소위 말하는 짐스러운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녀를 둔 결혼 생활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세우신 삶의 본보기를 따르는 삶이기에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오늘날 세상에서 창조된 본보기에 담긴 이상적인 관계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제자들은 창조된 본보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참된 제자들이 이러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실패해 왔으며,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순종과 교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합니다.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1903년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4절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겨냥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문맥상, 이 구절은 두 남자와 재혼하고 이혼한 여자가 첫 남편과 재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신의 명령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양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결혼의 본래적인 한 몸됨의 의미를 영속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성적 부도덕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는 결합의 한 몸 됨의 본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불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처럼,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미슈나의 케투봇 부분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지역 사회의 원로들에게 불만 사항 해결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5장 32절과 비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본문의 문제로 인해 해석상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메츠거의 본문 주석을 참조하십시오.

한 가지 어려움은 '포르네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의 불륜, 1장 19절에서처럼 혼전 불륜, 또는 레위기 18장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처럼 근친상간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New Living Translation의 접근 방식은 문맥상 포르네아의 일반적인 의미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어려움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불륜이 있었을 경우 이혼과 재혼을 모두 허용하는지, 아니면 이혼만 허용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전자의 견해를 취하지만, 주목할 만한 예외도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19장 11절과 12절이 이혼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독신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법적 논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듯하지만, 불륜의 경우 이혼과 재혼이 모두 허용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재혼의 자유가 이혼의 본질이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혼한 사람들에게만 독신이라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자의적인 듯합니다.

오히려 불륜으로 이혼한 회개한 사람들은 두 번째 이혼에서 바로잡을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많은 주해적 난점들 에 대한 특히 유용한 논의 와 학술 문헌 참조는 카슨의 주석을 참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 인류의 정체성과 관계에서 비롯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타락 이전 인류의 관계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 즉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때를 고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태복음 6:10).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의 영속성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며, 현재 삶의 한 측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의를 반영하고 예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분명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부의 불륜의 경우에도 이혼은 첫 번째 선택지는 물론,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불륜으로 인한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설령 불륜의 경우에도, 마태복음 18-21장과 그 이후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는 이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용서는 종종 관계 회복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대에도 이혼을 미워하셨다면(말라기 2장 14-16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지금, 더욱 미워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친숙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개인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으로 자주 여겨지는 복음서 본문 중 하나이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장면도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을 강조하신 것은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서 '온전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제자도의 두 단계 개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탐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께 대한 집착으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선한 행위에 몰두하는 대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마 19:16, 17).

아마도 그 남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영생을 가져다줄 선행을 하나 정해 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어떤 계명이 적절한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인용하시자, 그는 계명들을 지켰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가 되어 하늘의 보화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앞서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두 비유에서 묘사된 역할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예수님께서 자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슬픈 떠남은 그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마 19:19).

예수님은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인용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람의 반응은 그가 이 계명도 어겼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부는 참 하나님보다 우월한 신이 되었고, 이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돈을 섬기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6:24). 그의 물질주의는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6:33). 하지만 그의 슬픔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에, 그가 결국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기를 바라는 것도 그리 큰 기대는 아닐 것입니다.

왕국에 계신 예수님. 이 문맥에서 다섯 가지 용어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9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19장 23절에서 그분의 특징적인 용어인 천국과 함께 언급됩니다.

이는 19장 16절과 29절에 나오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19장 21절에서 동일한 개념을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제자들은 19장 25절에서 그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의미적 상호작용에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과 같은 공관복음 비교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미묘한 문학적, 문맥적 이유로 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천국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됩니다. 둘째,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천국이 미래에 있을 일임을 암시하는 반면, 온전해지고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천국이 현세에서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체험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모두 존재하며, 그 두 측면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적 진리와 영적 축복의 풍요로움을 훼손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해 미래 나라를 묘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회심한다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전반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성경이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토라의 궁극적인 스승이신 예수의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남은 자, 즉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 전체를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이방인 교회가 나라 전체를 다스릴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관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자들의 통치와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사이에 두셨던 구분을 허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면, 이 구분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흐름은 실제로 2016년으로 이어집니다. 20장 전반부에 나오는 일꾼의 비유는 1927년 베드로가 상급에 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 바로 뒤에 예수님의 세 번째 수난 예언이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 역시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20장 20절에서 상급에 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에 이어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이 이루어지고 수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9장 1절의 지리적 이동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옛말처럼 비유가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 이야기라면, 여기에 묘사된 지상인들의 천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이사야 5:1-7, 예레미야 12:10, 마태복음 21:28, 33). 그리고 여기서 땅 주인은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추수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13:39 참조).

이 외에도 첫째이자 가장 큰 자를 마지막이자 가장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9장 2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을 고려하면, 아마도 첫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고된 봉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덜 희생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큼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인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으며, 우리는 20 장 12절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종들은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공로 기준이 신적인 관대함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비유의 세부 사항들을 바로 앞 맥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괄호 안의 말씀에 묘사된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최후의 심판 때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는 가난해지는 사회적 역전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는 실제로 5장 3절의 팔복에서 그러한 역전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가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종교적 역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11-13절, 11장 19절, 21장 31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역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구원적 역사적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 대신 이방인이 부각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마태는 여러 곳에서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많은 이방인이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점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제자들 중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로 여겨질 교회적 역전으로 해석합니다. 적어도 두 개의 중요한 마태 복음 본문, 18장 1-4절과 20장 25-28절도 이 핵심 요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류학적 역전으로 해석하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마태는 인류 전체보다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더 관심을 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접근법의 문제점은 이러한 접근법들이 직접적인 맥락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은 비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제시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불평할 위험에 처한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모든 상을 받아들여야 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밭 주인의 비유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미래 왕국에서 가장 큰 상을 야심 차게 추구하는 문제를 예고합니다(20장 20절 이하). 이제 마태복음 20장 17-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28절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세 번째이자 가장 완전한 예언인 17-19절을 담고 있으며, 이어서 제자들의 야망을 강조하는 내용이 20-28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제자들의 교만과 영광에 대한 갈망과 대조합니다. 마태복음 20 장 17-19절의 구조는 앞선 두 수난 예언의 핵심 요소인 배신, 죽음,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의 구조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가르침의 기회로 전환됩니다. 20-23절의 대화와 24-28절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0-23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 요청을 알게 되자,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에서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 가르치실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적인 위대함에 대한 두 가지 병행 구절(20:25)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왕국의 위대함에 대한 두 가지 병행 구절(20:26과 27)과 대조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희생적인 봉사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20:28).

이 구절에서 독자는 예수님께는 동정심을, 제자들에게는 반감을 품게 됩니다. 제자들의 무지, 거짓된 확신, 그리고 교만은 예수님의 지식,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겸손과 대조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수난 예언에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예언입니다. 36페이지 보충 자료에 이 세 가지 예언을 비교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 예언과 비교에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36페이지 도표를 살펴보시고 세 가지 예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예언이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수난 예언이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 매우 극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방식에 주목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진정한 위대함의 정의에 대한 놀라운 연구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위대함은 명성, 권력, 그리고 영광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20장 25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시고, 20장 26절에서 즉시 이를 부인하십니다.

봉사라는 관점에서 위대함에 대한 그의 정의는 세상의 모델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적인 고난을 감수하는 그의 섬김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10장 1절, 12장 9절,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바뀐 위대함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식탁에 기대앉는 사람과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나는 시중드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누가복음 22:27 ).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설명을 담은 요한복음의 기록도 이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요한복음 13:12-17).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제자들은 이전에 겪었던 슬픔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보인 이기적인 간청과 1521년에서 1528년 사이에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 보인 사심 없는 간청을 비교해 보면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보다 더 큰 영적 통찰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염려 대신 자신의 영광에 대한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마 26:36-46).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그분은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고,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제자들이 무감각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위대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원의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누가복음 1:68, 2:38, 디모데전서 2:6, 디도서 2:14, 히브리서 9:12, 베드로전서 1:18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속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출애굽기 30:12, 시편 49:7-9, 특히 이사야 53:10-12와 같은 구약 성경 구절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28은 1:21을 상기시키며 26:28을 예고합니다. 1:21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유희인 이 확언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로마의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소외라는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대속물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12절의 배경, 16장 26절의 잊히지 않는 질문, 즉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20장 28절에서 '대신에' 또는 '대신하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전치사 '안티'를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마태는 구원이 대속적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하실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 이 대속물을 지불하실까요? 26장 28절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의 신성한 표징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려졌고, 이는 분명히 대속물이 지불된 때였습니다. 이제 20장 29-34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20장 17-19절에서 자신이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예루살렘은 불과 24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불길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걱정에 집중하실 수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군중과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자비가 두 눈먼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움을 청했을 때 군중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강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척도로 평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눈먼 자들을 섬기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눈먼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8장 4절과 9장 30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합창에 동참하지 않습니다(21장 9절, 21장 15절, 16절).

이제 20장에서 예루살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21장부터 16장까지의 땅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비유, 즉 우리 논의의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19장 27절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는 불길한 말씀은 비유를 괄호 안에 넣고 있는데,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유 다음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수난 예언(20장 17절부터 19절까지)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는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예리코에서 두 명의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끝맺습니다(20장 29절~34절). 마태복음 20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신 것과 그곳으로 가시려는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수난 예언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19장 17절, 18절, 29절과 비교하고, 2장 1절과 3절, 3장 5절, 4장 25절, 5장 35절, 15장 1절, 16장 21절, 21장 1절과 10절, 23장 37절을 살펴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후반부에 간청했고, 예수님의 응답은 인류를 향한 겸손한 섬김이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20장 28절). 세 소경의 치유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메시아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20장 30절과 31절, 21장 9절과 15절에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때 곧 다시금 되풀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곧 일어날 외경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가 계속해서 이끌어 온 이 복음서의 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지만,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선교하도록 파송하시기 위해 가신 때입니다.